

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COAs)가 지각한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s with Children of Alcoholics(COAs)

Hye Sun Kim*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Hwangjo-gil, Dogye-eup, Samcheok-si,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s with Children of Alcoholics and to draw the implication for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ample included 187 who were COAs and 275 who were non-COAs in a rural area of Gandwon-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nd family income between non-COAs and COA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between non-COAs and COAs. 3) The subfactor(withdrawa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influenced by teacher and school work-stress of the variables of daily stress. 4) The subfactor(depression/anxiety) of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influenced by high school and family-stress, friend-stress of the variables of daily stress.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 discussed some differentiated intervention methods and gave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COAs(Children of Alcoholics), daily stress, psychological adjustme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강원도 일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 청소년자녀(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 동안 총 632명을 설문하였으며, 그 중 COAs 187명과 non-COAs 27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non-COAs와 COAs 간에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COAs가 non-COAs에 비해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COAs의 위축은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그리고 COAs의 우울/불안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가정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가 영

* Tel. +82-33-540-3352. Fax. +82-33-540-3359. E-mail. welcom-kim@kangwon.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6, 2014 / Revised: Feb. 17, 2014 / Accepted: Feb. 20, 2014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알코올중독자 자녀, 일상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1. 서론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며, 폭음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음주율은 88.3% 이상이며[1], 폭음 비율도 63.4%(남자 66.3%, 여자 57.8%)로 2004년에 WHO에 알코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2][3]. 이러한 문제음주는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조기사망, 신체적 손실 및 건강 상실을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4], 고성방가, 파출소 난동 같은 공공질서 문란 행위서부터 폭행, 강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사회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5]. 또한 문제음주는 나이와 성별을 넘나들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파괴시키고 있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혹은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주로 인한 폐해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 중 눈여겨봐야할 대상이 알코올중독자의 청소년 자녀이다. 알코올중독자의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존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이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어가야 하는 청소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 자아의식이 발달,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자아 정체감 형성 및 특유의 발달과업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발달상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모든 생활면에서 혼동을 겪게 되고 심한 정서변화를 느끼며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8]. 게다가 알코올중독자 청소년 자녀는 문제음주가 빚어내는 다양한 가족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 행동,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어 성장한 이후에도 독특한 임상적 특성을 갖기 쉽다[6]. 그래서 우리사회에서는 non-COA보다 알코올중독에 취약하거나[9][10][11]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특징[9][12]을 보이는 등 그들만의 특성때문에 이들을 알코올중독자 자녀(COAs)라 부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이전 발달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을 성인아이 증후군(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이라 명하고 있다[13][14].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20-30년 동안 과학적인 연구, 임상적 사례보고서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혹은 문제음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연구를 해왔으며,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을 쉽게 도울 수 있는 대중적인 지침서들을 많이 보급해 왔다[15][16].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COAs에 대한

1) COAs(Children of Alcoholics)는 부모가 문제 음주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 문제음주자 중심의 의료개입이나 지역사회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COAs에 대한 개입은 문제음주자 가족개입의 일부로 진행될 뿐이며 이도 배우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COAs의 개입은 미진하다[16]. 하지만 COAs의 수는 문제음주자의 수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과생하게 될 미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적절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김미례·장환일·김경빈(1995)[17]의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의 개발에 힘입어 COAs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18], 대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20], 일개 시지역 알코올중독과 비알코올 중독 가정 중 1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21], 경기도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12], 대전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의 연구[22] 등이었다.

그런데 위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도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강원도 일지역의 COAs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상태, 그리고 그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강원도는 대학생의 문제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²⁾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곳이기 때문이다[24]. 또한 청소년 COAs는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적 스트레스와 함께 가정, 학교,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과중한 학업부담과 진로문제, 친구관계 어려움과 또래압력, 가족갈등 및 학교 분위기와 같은 일상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25], 자신을 보호할 능력과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력이 미처 형성되기 이전부터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인 부모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반복적으로 역기능적인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서[26],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정도가 비음주군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2]. 따라서 강원도 일지역 청소년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을 연구한다는 것은 COAs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1. 알코올중독자 자녀(COAs)

2) 천성수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23], 강원도지역 대학생의 상습폭음자 비율은 47.5%로, 두 명 중 한 명은 지난 2주일 동안에 5잔 이상(여자는 4잔 이상)의 음주를 3회 이상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문제음주자가 부모이기에 벗어날 수도 없는 유전적 유산과 삶의 유산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COAs의 운명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모든 문제음주자 자녀들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27][28][22], COAs의 문제가 부모의 알코올중독 외의 다른 변수들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29]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그들이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0][31][32].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가족이란 알코올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받으며[33], 특히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30][31][16][32].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부모의 문제음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34].

COAs는 non-COAs보다 알코올중독의 위험성이 3~4배 더 높으며[11] 언어적, 신체적 학대 및 근친상간과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다른 또래 아동보다 학대받기 쉽고 자존감이 낮으며 우울해지고 희망없음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29][9][30][32]. COAs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만취한 상태일 때는 폭력과 폭언을, 비알코올중독 부모에게는 이중 메시지를 받으며 늘 긴장과 불안 상태로 집에서 벗어나는 환상을 꿈꾸지만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과 걱정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텅텅 빈 삶을 살아간다[9].

또한 COAs는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유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장애의 문제나 무단결석 등의 학교문제, 과잉행동, 도벽, 가출,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 그리고 이른 음주, 약물 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때론 COAs 중에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과 강한 책임감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집과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대한 도피일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책임감으로 학교에서 즐기거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9]. 그리고 COAs는 '누구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등의 암묵적인 가족규칙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의 문제음주때문에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등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9].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COAs의 수는 24%~36%³⁾로 추정되고 있는데,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YWCA가 2002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담실을 방문하는 80-90%의 청소년이 술 문제를 둔 부모를 두었다고 하며 청소년의 갈등과 문제의 대부분이 부모의 음주문제로부터 파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1]. 또한 COAs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부인한다는 점[36]에서 더 많은 수의 COAs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정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37]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인 대학생 중

3)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현선·이상균(2001)[13]은 34.4%, 현명선 외(2008)[12]는 24.7%, 허지연(2003)[18]의 연구에서는 31.4%,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혜련 외(2004)[35]의 연구에서는 36%,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명숙(2006)[10]의 연구에서는 32.9%,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선(2013)[5] 연구에서는 30.4%였다.

36.4%가 부모의 음주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인 CAST-K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로 판명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즉 정체성과 친구와의 우정, 직업을 선택하는 일 등 중요한 발달과제가 제기되는 시기로 부모의 정신 병리와 가족환경이 심리적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38]. 하지만 문제음주자인 부모는 자신과 가족을 보살필 수 없고 부부간에 불화를 조성하며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는 등 가족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족 내 청소년기의 삶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다[39][22].

특히 COAs은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이중메세지에 의해 '자기감 상실'이라는 위기를 겪는다. 이중메세지란 일종의 "사랑해/저러가", "필요해/필요없어" "자랑스럽다/창피하다", "물론 너를 좋아하지/조금 더 형처럼 될 수 없겠니?"로 대부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무의식적 메시지들이다[40]. 이러한 이중메세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가정환경 속에서 COAs은 죄책감, 수치, 외로움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깨어진 약속의 경험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고통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보다 차라리 잊고 사는 삶의 태도 등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응해 나간다[40][9].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하나의 가족규범이 되고 그것이 가족의 행동패턴과 적응 유형되어 COAs의 정체감을 형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뒷에 빠지게 한다[40]. 이렇게 뒷에 빠진 상태와 느낌은 역기능적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가족, 친구, 학교, 학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상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

일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이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상 환경과 상황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 분류 중 일상사로[41] 이렇게 소소한 일상 스트레스는 사소하게 치부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만성화될 수 있고, 여러 생활환경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개인의 삶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쌓인 분노는 결국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음주 가정에서 암암리에 적용하고 있는 "말하면 안 돼"라는 규칙은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서[40], 결국 COAs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결과(outcome)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불안하고 우울해지게 만든다[43][22]. 실제 최윤신(2009)의 연구에 따르면[44] 부모의 음주 문제는 자녀의 내면화 문제(우울, 불안, 위축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김규수(2006)의 연구에서도[45]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비음주 사회적 음주자녀보다 우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COAs는 non-COAs에 비해 심리·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44], 문제음주자가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부모의 문제음주는 자녀의 우울 등 여러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9].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I군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시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설문결과에 대한 익명성 등을 설명하였고,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총 680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한 48부를 제외한 632명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COAs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AST-K척도를 사용하였다. CAST-K 척도는 COAs를 선별하는 도구로, 많은 연구에서 CAST-K 점수의 6점 이상을 COAs로, 5점 이하를 non-COAs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CAST2-K 점수가 2,3,4,5점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양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Kelley, et. al.(2007)의 연구[46]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47], 6점 이상인 COAs 187명과 0점에서 1점을 보인 일반가정, 즉 non-COAs 275명을 포함하여 총 46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CAST-K

부모의 알코올중독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Jones(1981)[48]가 알코올중독자인 부모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한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를 김미례 외(1995)[17]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으며,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게 되어 있고, 6점 이상을 얻는 사람은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분류된다. 이들은 부모의 음주로 인한 문제를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한 자녀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33$ 이었다.

2) 일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 Rowleson 등(1988)[49]이 개발한 Daily Hassles Questionnaire(DHQ)를 한미현과 유안진(1995)[41]이 한국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가지 주요 변수(부모, 가정생활,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생활, 생활환경)중 2가지 변수(부모와 생활환경)를 제외한 4가지,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

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스트레스 $\alpha=.931$, 하위 요인 별로 가족 스트레스 $\alpha=.886$, 친구스트레스 $\alpha=.914$ 학습스트레스 $\alpha=.836$ 학교스트레스 $\alpha=.841$ 이었다.

3)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위축, 우울/불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Achenbach(1991)[49]가 개발한 ‘청소년 자기평가서’(Youth Self-Report: YSR)를 오경자 외(2001)[51]가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신뢰도 계수는 $\alpha=.920$, 하위요인인 위축은 $\alpha=.812$, 우울/불안은 $\alpha=.898$ 로 나타났다.

4) 인구학적 특성

COAs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13][18][21], 학교유형[13], 가족구조[13][21], 가정의 월평균소득[18][21]이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COAs따른 주요 변수(가정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학습스트레스, 위축, 우울·불안)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집단 평균분석(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끝으로 COAs와 non-COAs의 일상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non-COAs와 COAs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1>는 non-COAs와 COAs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non-COAs의 성별 중 여학생이 125명으로 45.5%, COAs의 성별 중 여학생이 103명으로 55.1%이었고, 성별과 non-COAs와 COAs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non-COAs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109명으로 39.6%, COAs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47명으로 25.1%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non-COAs와 COAs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Non-COAs and COAs

구분		Non-COA(n=275) 빈도(%)	COA(n=187) 빈도(%)	X
성별	남학생	150(54.5)	84(44.9)	4.126*
	여학생	125(45.5)	103(55.1)	
학교유형	중학교	231(51.9)	93(49.7)	.728
	고등학교	214(48.1)	94(50.3)	
가족구조	첫 번째 결혼 재혼, 이혼 등	235(85.5) 40(14.5)	151(80.7) 36(19.3)	1.793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81(29.5) 85(45.5) 55(29.4) 47(25.1)	

※ *p<.05, **p<.01, ***p<.001

2. non-COAs와 COAs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비교

<Table 2>는 non-COAs와 COAs간에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non-COAs와 COAs에 따른 일상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COAs집단의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습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non-COAs보다 높았고, COAs집단의 위축, 우울 및 불안도 non-COAs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Daily Stress, Psychological Adjustment between non-COAs and COAs

구분	non-COAs(n=275)		COAs(n=187)		t(p)
	평균	(S.D.)	평균	(S.D.)	
일상 스트레스					-7.154***
가족생활스트레스	10.88	4.107	13.73	4.331	-4.347***
친구스트레스	9.87	3.903	11.60	4.580	-4.390***
학습스트레스	12.63	4.654	14.47	4.008	-5.100***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	10.84	3.897	12.83	4.458	
심리적 적응					
위축	4.96	3.456	6.36	3.570	-4.212***
우울·불안	5.43	5.585	8.03	5.600	-4.902***

※ *p<.05, **p<.01, ***p<.001

3.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Table 3>는 COAs의 일상 스트레스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COAs은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인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습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인 위축, 우울/불안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OAs

구분	가족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위축	우울/불안
가족생활스트레스	-					
친구스트레스	.537***	-				
학업스트레스	.271***	.342***	-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	.494***	.646***	.539***	-		
위축	.350***	.340***	.211**	.456***	-	
우울/불안	.354***	.402***	.371***	.431***	.692***	-

※ *p<.05, **p<.01, ***p<.001

4. COAs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COAs의 일상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른 변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4)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 학교, 부모의 결혼유형, 가정 월평균소득, 가정생활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 중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27.3%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6.095, p<.001).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β=.378, p<.001)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수와 일상 스트레스 주요 변수들이 심리적 적응 중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27.8%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7.583, p<.001).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교유형(β=.160, p<.01), 가정생활스트레스(β=.171, p<.05), 친구스트레스(β=.179, p<.05)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Psychological Adjustment(withdrawal, depression/anxiety) of COAs

구분	위축		우울/불안	
	β	t	β	t
성별	.029	.427	-.040	-.605
학교유형	.002	.031	.160	-.144**
가족구조	.072	1.048	.053	.793
가정 월 평균소득	-.005	-.073	.043	.043
가정생활 스트레스	.166	1.969	.171	.171*
친구스트레스	.027	.293	.179	.179*
학업스트레스	-.045	-.548	.068	.068
교사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378	3.800***	.160	.160
R ²	.273		.278	
수정된 R ²	.198		.242	
F	6.095***		7.583***	

4)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성별(남자=1, 여자=0), 학교유형(중학교 =1, 고등학교=0), 결혼(첫번째 결혼=1, 기타=0)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점검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산팽창지수(VIF) 10이상이지만[52], 본 연구에서는 VIF값이 1.050~2.293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 *p<.05, **p<.01, ***p<.001

V. 논의

본 연구는 강원도 일지역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상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on-COAs와 COAs 간에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OAs는 non-COAs 보다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는 서울지역 중학생 COAs 중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허지인(2003)의 연구[18]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관련하여 허지인(2003)의 연구[18]에서 COAs의 가정의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5.5%로 나타나 연구지역 COAs는 최저생계비⁵⁾ 이하의 가족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COAs는 non-COAs에 비해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 모두에서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COAs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고 위축되며 우울하고 불안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나타낸다는 Schmeelk-Corne & Zimmerman(2003)[57]의 연구와 일치하며[54],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우울 및 불안에서 모두 non-COAs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허지인(2003)[18]의 연구결과, COAs가 non-COAs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배행자(2005)[2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COAs의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지역의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COAs에게 학교란 가정만큼이나 힘든 곳이다[14]. 특히 COAs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경우는 조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혼자 남겨지기 때문으로, COAs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더해지고 뭔가를 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일정 시간동안은 교우들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14]. 또한 COAs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결국 학교는 COAs에게 집을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천국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지옥으로 자리잡게 돼[14]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37]. 즉 부모의 알코올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에 흥미가 떨어지고 학업태도가 부정적이며, 학교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55],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COAs의 인구학적 변수 중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와 더불어 삼급학교로의 진학

5) 2011년 8월 3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공시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495,550원이며,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해당 구성원이 있을 경우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2,048,904원으로 추정된다('2012년 최저생계비'. RaVer's 세상만사. 네이버 블로그; 김혜선 2013 재인용[5]).

이라는 발달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단계보다 다양한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25],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발달 단계상의 과도기적 특성에서 오는 문제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이 느끼는 신체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거기에 COAs는 문제음주자를 부모로 됨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57][27][22], 만성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불안하고 우울해지게 된다[43][22]. 실제 권은영·정현희(2011)의 연구[54]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군집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애착 수준, 학교친구애착이 낮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교사에 착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중인 COAs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COAs의 가정생활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허지은(2003)[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COAs는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요구, 비난, 학대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반사회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다[58][21]. 실제 COAs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덧에 걸린 삶을 살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없으며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서 집안일을 돌봐야 하거나 학교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보다 집에서 고통받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집을 떠나는 환상 속에 살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아이로 남겨진다[14]. 또한 Woitiz(2002)[14]은 COAs의 친구관계 문제에 대해서 'COAs는 알코올중독자 부모로 인한 자신의 이미지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데 대해 믿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친구들이 COAs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다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각은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도 COAs의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즉 COAs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다. 부모 중 한 명은 술에 취해있고, 나머지 한 명은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로 가정의 수치를 감추려하기 때문에 친구를 초청하지도 그 친구 집에 초청받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가 Woitiz(2002)[14]의 반문처럼 COAs는 가족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는 깊게 연관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COAs의 우울과 불안이라는 정서적 부적응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원도 일지역 COAs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상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강원도 일 지역 중·고학생 632명 중 연구에 적합한 46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on-COAs와 COAs 간에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둘째, COAs가 non-COAs에 비해 일상 스트레스의 주요 변수와 심리적 적응의 주요 변수 모두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COAs의 교사 및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COAs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COAs는 가정생활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표집이 강원도 일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전수조사하지 못하고 632명의 설문지 중 COAs 여부에 따라 non-COAs 275명, COAs는 187명을 표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이루었으며, 강원도의 일지역 COAs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COAs의 연구에서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COAs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 허지은(2003)[18]과 최윤신(2009)[44]의 연구에서 남자 COAs보다 여자 COAs가 우울과 불안 등 더 많은 위험에 처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ren(1986)의 연구[29]에서는 COAs에게 가난과 박탈이 삶에 강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8][21].

둘째, 국가적 차원의 음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COAs는 non-COAs보다 일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우울/불안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리적 부적응 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는 음주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해당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COAs에 대한 학교차원에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란 청소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으로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업수행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과업성취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곳이자[59], 학교에서의 성취여부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개인의 유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60] COAs의 교사 및 학교 생활스트레스의 개입을 통해 심리적 적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로 부터 충분한 지지는 아무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의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음[61][62]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음주문제의 직접적인 결과의 대상인 COA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바른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방향이 필요하다. COAs의 우울/불안은 가족과 친구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COAs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과 친구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앞으로의 성장과 성숙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COAs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개입프로그램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Lee, Ji Hyun. 2010. *National Survey on Patterns of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Seoul: S&Y.
- [2] Oh, Sang Woo. 2009. Review: Effects of Alcohol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8(1): 1-7
- [3] Kim, Bong Jeong and Ae-Suk Jeong. 2011. Associated Factors of Problem Drinking and Patterns of Drinking among Male Military Personnel in Korea. *J. of Korean Alcohol Science*. 12(2):1-16.
- [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49/en>. Accessed by 6-30 2011.
- [5] Kim, Hye Sun. 2013. A Study on Problem Drinking and the Influence of Parent's Problem Drinking and Codependency among Students in Dept.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2): 85-108.
- [6] Yang, Hye-Jin. 2007. Children's COA & Psychological-social Character by Parent's Problem Drink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5(2). 1-12
- [7] Kim, Han-Na. 2012. Parenting of Femal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ACOAs): The Mediator Effects of Depression. *J. of Korean Alcohol Science*. 13(1):1-15.
- [8] Kang, Won-Hee, Soon-Hwa Yoo, and Kyung-Mi Yun. 2010.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Education*. 58(3): 357-379.
- [9] Woitiz, J. G. 1990.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HCI.
- [10] Yoon, Myeong Sook.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ACOA Traits among University Students of Alcoholic Family. *J. of Korean Alcohol Science*. 7(2):29-44.
- [11] Kim, Sung Kwun. 2009. *Addiction Psychiatry: Biological Reason*. Seoul: MLCommunication.
- [12] Hyun, Myung-Sun, Kyung A Nam, and Myung A. Kim. 2008. A Study on Parents' Drinking Behaviors and the Mental Health of Their Adolescent Offspring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7(4): 392-402.
- [13] Park, Hyun-Sun and Sang-Gyun Lee. 2001.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ult-Children of Alcoholics and Psychosoci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118-144.
- [14] Woitiz, J. G. 2002. *The Complete ACOA Source Book: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t Home, at Work and in Love*. HCI.
- [15] Short, J.L. 1990. *An Evaluation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oblem*

- Drinkers(alcoholism)*. Ph. D.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16] Yang, Seung Hee and Pyun Sook Lee. 2005. The Effects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on Mental Health and the Coping Behavior for the Children of Alcoholics. *J. Korean Acad Nurs*. 35(1): 77-85.
- [17] Kim, Mee-Rye, Hwan-Il Chang, and Kyung-Bin Kim. 1995.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K):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4(4): 1182-1193.
- [18] Huh, Jee In. 2003. *A Study on Daily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of Alcoholics: Focused on Analyzing Mediator Effect of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19] Jeong, Hyang Su. 2000.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on Maladjustment Behavior*.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20] Choi, Youn Jung. 2004. *A Father's Problem Drinking and his Adolescent Children's Adjustment: Focusing on Parenting and Attachment to Parents as a Mediator*.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21] Pai, Hang Ja. 2005. The Mental Health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lcoholics and non Alcoholics Famil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4(3): 240-249.
- [22] An, Jae-Soon, Sung-Jin Chung, and Kyung-Hyun Suh. 2012.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roblematic Drinking, Parentification, and Self-Esteem of High School Student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13(1):17-29.
- [23] Chun, Sung Soo, Aeree Sohn, Chang-Ho Song, Ju-Yul Lee, and Sun Kyoung Kim. 2003.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60 campuse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4(2):119-135.
- [24] KBS in Gangneung. *The Rate of Taking Alcohol, Tobacco and Obesity in Gangwon-do is in the Second Highest Place*. 930 NEWS. 4. 3. 2013.
- [25] Kim, Young-Mi. 2012. Effects of Daily Hassles and Learned Helplessness on Psychological Maladaptation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Family Cohes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47-73.
- [26] Ju, So-Hee. 2008. A Study on the Process of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a Parent's Alcoholism: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3: 225-262.
- [27] Fischer, K. E. & M. Kittleson. 200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lcoholism and Family Dysfunction to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 48(4): 151-156.
- [28] Werner E. E. & J. L. Johnson. 2004. The Role Old Caring Adults in the Lives of Children of Alcoholics. *Substance Use and Misuse*. 39(5): 699-720.
- [29] Deren, S. 1986. Children of Substance Abusers: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3: 77-94.
- [30] Velleman, R. & J. Orford. 1999. *Risk and Resilience*. Adults Who Were the Children of Problem Drinkers. Amsterdam: OPA
- [31] Prescott, C. A. & K. S. Kendler. 1999.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in A Population-based Sample of Male Twin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34-40.
- [32] Gifford, E. & K. Humphreys. 2007. The Psychological Science of Addiction. *Addiction*. 102(3): 352-361.
- [33] Beattie, M. 1992. *Codependent No More*. The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Kim, Hye-Sun(2013). Seoul: Hakjisa.
- [34] Jang, Su-Mi. 1992. *A Study on Effects of Brief Group Treatment Program for Self-esteem Enhancement of Alcoholics' Childr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35] Kim, Hae-Ryun, Sun-Young Jeon, and Jung-Hee Kim. 2004. The Relationship of Father's Alcoholism, Family Functioning Parental Attachment 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Adult Daughters of Alcoholics Fath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317-343.
- [36] Black, C. 1984. *Talk o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Maryland: Gambrells.
- [37] Kim, Jung-Hee. 2007. Alcohol Addiction of Parents and Colleg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to the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1: 103-138.
- [38] Kwon, Jung-Don and Dong-Bae Kim. 2009. *Human Behaviors and Social Environment*. Seoul: Hakjisa.
- [39] Eiden, R. D., E. P. Edward, & K. E. Leonard. 2002.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Attachment among Alcoholics Famil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2): 253-273.
- [40] Friel, J. C. & L. D. Friel. 1988. Adult Children. *The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Ryu, Hee-Dong and Jeong, Yu-Kyung(2010). Seoul: Geulsem.
- [41] Han, Mi-Hyun and An-Jin Yoo. 1995. Development of Daily Hassel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5.
- [42] Rogers, C. 1973. *Becoming Partners: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New York: Delta Books.

- [43] Christensen, M. B. & N. Bilenberg. 2000.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of Alcoholic Mothers and Father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9: 219-226.
- [44] Choi, Yun Shin. 2009. A Study on Affect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on their Adjustment to Society & their Character-with Special Reference to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6(2): 163-180.
- [45] Kim, Kyu Soo. 2006.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Maladjustment Behavior on Offspring in Problematic Drinking of Alcoholic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2(2): 101-125.
- [46] Kelley, M. L., A. French, K. Bountress, H. A. Keefe, V. Schroeder, K. Steer, et al. 2007. Parentification and Family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of Origi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32: 675-685.
- [47] Kim, Hae-Ryun and Soo-Kyung Park. 2011.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Teacher's Concer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Role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s of Alcoholic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37-50.
- [48] Johnes, J. W. 1981.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hicago: Family Recovery Press.
- [49] Rowlison, R. T. & R. D. Felner.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432-444.
- [50] Achenback,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 [51] Oh, Kyung-Ja, Hae-Ryun Lee, Eun-Hye Ha, and Kang-E M Hong. 2001. *K-YSR*. Seoul: Joongang-Jekjeong
- [52] Lee, Hak-Sik and Ji-Hun Lim. 2008. *SPASS 14.0*. Gyeonggi: Beopmunsa.
- [53] Schmeelk-Cone, K. H. & M.A. Zimmerman. 2003. A Longitudinal Analysis of Stress in African-American Youth: Predictors and Outcomes of Stress Traject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6): 419-430.
- [54] Kwon, Eun-Young and Hyun-Hee Chung. 2011. Stress Change Pattern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29-53.
- [55] Kim, Ok-Gi and Weon-Cheul Jeong. 2009. Factors Affecting School Resilience of the High School Child of Alcoholic Family: Medi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9): 183-203.
- [56] Lee, Hee-Ja. 2007.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Entrance Exam Stress on Their*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57] Dodd, D. T., & R. L. Robert. 1994. Differences Among Adult COAs and Adult Non-COAs on Level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ddictions and Offender Counseling*. 14:49-56.
- [58] Lease, S. H. 1990. *Focus of Health: Resiliency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aper presented at the 98th Annual.
- [59] Yoon, Hye-Mee, Byung-Kum Park, and Jung-Ran Ryu. 2005. Stres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Risk Behaviors. *J. of Human Ecology*. 9(1):45-64.
- [60] Kim, Jae-Han. 2003.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Resiliency of Adolescents in the Alcoholic Familie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61]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43-85)*. New York: McGraw-Hill.
- [62] Yu, Jung-Ran and Hye-Mee Yoon. 2004.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ress Variables & Coping Strategies on Adolescent's Quality of Life. *J. of Human Ecology*. 8(1): 77-92.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 [1] 이지현. 2010. 음주실태 및 음주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서울: S&Y.
- [2] 오상우. 2009. 음주가 비판 및 대사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대한비만학회지*. 18(1): 1-7.
- [3] 김봉정, 정애숙. 2011. 우리나라 남자군인의 음주실태와 문제음주관련 요인.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2):1-16.
- [5] 김혜선. 2013.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음주영향 그리고 공동의존. *사회복지연구*. 44(2): 85-108.
- [6] 양혜진. 2007. 문제음주부모를 둔 청소년의 성인아이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12.
- [7] 김한나. 2012. 여성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의 부모 역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3(1): 1-15.
- [8]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10] 윤명숙. 2006. 알코올중독 가족력을 가진 대학생 자녀의 ACOA 성향과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29-44.

- [11] 김성근. 2009. *중독정신의학: 생물학적 원인*. 서울: 엠엘커뮤니케이션.
- [12] 현명선, 남경아, 김명아. 2008.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7(4): 392-402.
- [13] 박현선, 이상근. 2001. 알코올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아이 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사회복지학*. 46: 118-144.
- [16] 양승희, 이평숙. 2005.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상태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5(1): 77-85.
- [17] 김미례, 장환일, 김정민. 1995. 한국어판 알코올중독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K)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4(4): 1182 -1193.
- [18] 허지인. 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COA)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정향수. 2006.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최윤정. 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배행자. 2005. 알코올중독과 비알코올 중독 가정 중 1학생의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4(3): 240-249.
- [22] 안계순, 정성진, 서경현. 2012. 부모의 문제음주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3(1): 17-29.
- [23]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2003). "대학생폭음에 의한 폐해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전국 60개 대학교 조사결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2): 119-135.
- [24] KBS 강릉. "강원도 술, 담배, 비판 전국 두 번째로 높아". 930 뉴스. 2013. 4. 3. 방송
- [25] 김영미. 201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47-73.
- [26] 주소희. 2008. 알코올중독자 가정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23: 225-262.
- [33] Beattie, M. 1992. 김혜선 옮김(2013).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서울: 학지사.
- [34] 장수미. 1992.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단기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김혜련, 전선영, 김정희. 2004.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 ACOA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317-343.

- [37] 김정희. 2007. 부모의 알코올중독과 대학생 자녀의 학교적응: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03-138.
- [38] 권중돈, 김동배. 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학지사.
- [40] Friel, J.C., & Friel, L. D. 1988. 유희동, 정유경 옮김(2010). 역기능가정의 비밀 성인아이. 서울: 글샘.
- [41] 한미연, 유안진. 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5.
- [44] 최윤신. 2009. 부모의 문제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163-180.
- [45] 김규수. 2006.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부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2): 101-125.
- [47] 김혜련, 박수경. 2011. 알코올중독자 부모를 둔 청소년의 자녀역할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9(4): 37-50.
- [51] 오경자, 이해련, 하은혜,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52] 이학식, 임지훈. 2008. SPASS 14.0. 경기: 법문사.
- [54] 권은영, 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3.
- [55] 김옥기, 정원철. 2009. 부모의 알코올중독이 고교생자녀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매체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9): 183-203.
- [56] 이희자. 2007. 대입수험생의 입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9] 윤혜미, 박병금, 유정란. 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위험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9(1): 45-64.
- [60] 김제한. 2003. 알코올중독자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62] 유정란, 윤혜미(2004).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련된 인구사회적 변인, 스트레스 변인 및 대처방식. 생활과학연구논총. 8(1): 77-92.

김혜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임상사회복지 전공, 2004)를 취득했고,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독, 가족치료, 임상사회복지 등이며, 사회복지학개론(공저, 2014. 3판),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역서, 2013) 등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 음주 영향 그리고 공동의존(2013)”,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COA)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동의존과의 관계(2013)” 등이 있다(welcom-kim@kangwon.ac.kr).